

# “직속기관 명칭변경 재의요구”

### 전북교육청, 교육감 권한침해 소지 커... 이달 말 도의회에 재의요구서 송부

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가 직속기관 명칭을 일괄 변경하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결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진행석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전북교육청 8개 직속기관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도청 소속인 지 교육청 소속인지 도민들이 혼란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전라북도교육연수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학생지원원, 전라북도학생해안수련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명칭에 담긴 '전라북도'란 글자 대신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또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도 소재하고 있는 시군의 이름을 넣어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도의회는 지난 8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1일 도교육청에 의결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직속기관 명칭변경 관련 조례가 교육감 권한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판단,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행정기구 설치·운영과 명칭제정에 관한 권한이 집행청인 교육감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동의없이 의원 발의를 거쳐 도의회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명칭제정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청은 모두 전라북도라는 동일법인체다. 따라서 양 단체들의 산하기관 명칭의 작명은 모두 대부분에 전라북도 또는 전북이라는 명칭을 공통으로 사용하며, 각 기관들이 맡고 있는 기능 또는 시군지역명칭 등을 후단부분에 담아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 소속 기관 명칭들에는 이미 '교육' 또는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도시사 소속 기관들과는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주장이다.

시군지역마다 1곳씩 설치된 교육지

원청의 경우도 전라북도라는 법인명칭 후단에 시군지역 명칭과 함께 교육지원청이라는 용어를 붙여 전라북도OO교육지원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별표2에서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은 전북 최초로 설립된 교육문화회관으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명칭이고, 마한교육문화회관은 마한·백제문화권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역사적 의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20년 이상 사용해오던 명칭인데 갑자기 변경할 시 오히려 혼란과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여러 광역단체가 마한문화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미 선점한 기관 명칭을 포기하는 것은 주도권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또한 합리적 근거도 미약하다는 판단이다. 도의회에서는 도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명칭변경을 요구했지만 실제 시설 이용자들은 학생 교직원들은 명칭에 따른 불편함이나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공익 증대의 불명확성이다. 8개 기관의 각종 사인물 등을 교체할 경우 최소 8억원 이상의 교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주민 편의 제고보다는 행·재정적 낭비가 크다는 우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재의요구가 결정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며 “법제심의위원회에 출석한 해당 직속기관장들도 기관명칭 변경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5월 말 도의회에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실용적인 창업 지원 전북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단장 조광수·이하 사업단)이 '1차 실전창업형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자들의 꿈 실현에 나서고 있다.

## 호원대 취업지원실 '신입생 진로 챙기기' 한창

비대면 진로내비게이션 특강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영상특강으로 제공, 취업자를 통한 활동으로 선호하는 직업과 생활사 검사 등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자기이해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22일~5월 20일까지 29일 간 1,071건의 조회수로 작년(582명)과 비교해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간호학과 1학년 0D경 학생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새로운 대학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나 검사와

특강을 통해 명확한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대면으로 특강을 듣지 못해 다소 현장감이 떨어져 아쉬운 마음이 컸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재선 취업지원실장(소방안전학과 교수)은 “코로나 19로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의 운영이 어려움이 있으나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며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예비창업자 꿈 실현”

### 14팀 대상 창업 프로그램 운영... 우수 3팀 선정

전북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단장 조광수·이하 사업단)이 '1차 실전창업형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자들의 꿈 실현에 나서고 있다.

21일 사업단에 따르면 5월 18일~28일까지 1년 미만의 초기 및 예비창업자 14팀을 대상으로 IP창업 기초교육과 사업계획서 작성, 그룹멘토링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단은 교육생을 5개조로 공간을 나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 이어지고 있는 교육을 통해 사업단은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

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후 발표대회를 진행, 우수한 3팀을 선정해 최대 500만 상당의 아이템 검증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조광수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안정적 창업을 꾸리는 이들의 열정이 이러한 어려움마저 넘어서고 있다”며 “이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실용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은 1차 실전창업형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에 이어 모두 4회에 걸친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 학습더딤 학생 기초학력 지원

### 전북교육청, 전주 관내 33곳 전주교대생 보조교사 배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습더딤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를 운영하는 전주관내 초·중 33개교 교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사전 안내 및 초·중학생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전주교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고, 수강신청을 통해 전주교대 2~3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신청을 받았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예비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연수와 운영학교·예비교원 만남 등 사전 활동이 진행된다. 보조교사들은 6월부터 11월까지 전주관내 희망 초·중학교 33개교에 배치돼 정규수업 중 보조교사로 활동하면서 학습더딤 학생들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배움에 느린 초등 저학년 한글 및 수학을 지도하는 '초등 저학년 첫걸음 지원' ▲

(1~6학년) 읽기, 쓰기, 기초수학을 지도하는 '기초학습(3R's) 지원' ▲국어, 수학 등 '교과학습 향상 지원' ▲학습더딤학생 생활상담과 학습 고민을 지원하는 '학습고민·상담 지원' ▲학습유형검사, 흥미도 향상, 학습계획, 학습방법, 읽기곤란 학생을 지원하는 '학습코칭 지원' 등 학교별 활용 계획을 따라 운영시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예비교원이 학기 중이거나 운영학교 방학 중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보조교사들은 해당 2시간씩 총 29회(58시간)에 걸쳐 활동하게 되며, 활동 완료 후에는 30시간의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해 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전주교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를 운영하게 됐다”며 “초·중학생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즐거운 배움이 있는 교실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국연합학력평가 도내 99개 고교 1만 6917명 응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21일 도내 99개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평가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차례 연기됐다가 등교수업 이틀째인 이날 진행됐다. 도내에서는 99개 고등학교에서 1만

6,917명(한국사 기준)이 평가에 응시했다.

평가는 오전 8시 40분부터 2021학년 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국어, 수학(가형/나형),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 5개 영역에 걸쳐 진행됐다. /정은성 기자

## 무주 발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